

로봇이 일자리 뺏으면 고령근로자부터 '휘청'

2015년부터 5년간 700여만개 일자리 사라져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세븐일레븐 시그니처점에서 모델과 직원이 인공지능 결제 로봇 '브니'를 통해 물건 결제를 하고 있다.

로봇 등장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면 고령근로자가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장기실업률이 높고 정보통신기술이 부족해 다른 연령보다 로봇에 대체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2일 보험연구원 발표한 고령화 리뷰에 따르면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로봇이

대체가능한 사무·행정과 제조·생산업을 중심으로 약 710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노동시장은 컴퓨터와 인공지능(AI) 등장으로 자동화가 진행 중이다. 공장 노동자와 비서, 배달 직원 등은 이미 컴퓨터와 로봇으로 상당수 대체됐다.

이같은 자동화는 고령 근로자에게 더 치명적인 것으로 우려된다.

김혜란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고령근로자는 젊은 근로자보다 장기 실업률이 더 높고 나이가 들수록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며 "자동화가 가속화 할수록 의미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부분 고령 근로자가 자동화가 쉬운 직업에 종사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대부분 국가에서 고령 근로자의 50%가 자동화가 가능한 직업에 종사했다.

15개 주요국가를 대상으로 고령 근로자에 대한 자동화 위험도를 측정한 결과 고령 근로자 30%가 자동화가 가능한 직업을 수행했다.

이 중 중국은 평균적으로 고령 근로자 76%가 자동화 작업을 맡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부터 노동시장에서 고령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었다. 유효고용률은 2000년대 초반 62%에서 지난 2014년에는 64%로 높아졌다.

김 연구원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대신하면 무엇보다 고령 근로자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적절히 개입해 복지지출과 재정적 지원, 고령자에 대한 훈련 및 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전남도,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50억 용자 지원

오는 28일까지 신청 접수...연 1% 저리

전남도는 2018년 하반기 관광진흥기금 50억원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연 1% 저리로 용자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전남도는 2013년부터 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관광진흥기금 360억 원을 조성했으며 현재까지 34개 업체에 212억 원을 용자 지원했다.

올 하반기 용자는 관광숙박업, 관광관련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우수 숙박시설(굿스

레이), 일반 숙박시설 가운데 관광호텔로 개보수를 바라는 업체에 지원된다.

용자 한도는 신축 15억 원, 증축 8억 원, 개보수 3억 원이다. 대출금리는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1%로 3개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용자 지원을 바라는 업체는 먼저 대출 취급은행인 광주, 기업, 농협, 하나, 한국시티, 우리은행에 대출상담을 받은 후 시군 관광부서에 용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우욱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관광진흥기금은 숙박시설 신축, 낡고 노후한 숙박시설 개보수 등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는데 특목히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광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에 기금 용자를 지원해 관광인프라가 확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관광진흥기금 용자 지원계획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 관광과(061-286-5222)나 시군 관광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정환 기자



전남농협, 조합장 만남의 행사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지난달 31일 여주시 낙포동 소재 남해화학 대강당에서 전남 관내 농협 조합장, 지부장 및 농정담당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남농협 조합장 소통(笑中)한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폭염에 '에너지 빈곤층', 호흡곤란·실신까지...“냉방복지 필요”

연이은 폭염이 계속되자 올 여름 에어컨을 켜더라도 안되는 '에너지 빈곤층'의 고충은 더 컸다.

2일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한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지난달 21

일 내 발생한 운영질환자는 10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646명) 대비 61%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같은 고열 환경이라도 '에너지 빈곤' 여부에 따라 운영질환 양극화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에너지시민연대가 발표한 '2018년 여름철 빈곤층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약 68%가 폭염으로 어지러움증 및 두통을 경험했다. 폭염으로 호흡곤란에 실신까지 경험하는 등 위험수위를 경험한 이들도 약 12%에 달했다.

한편 일본은 올 여름 냉방복지 정책을 시행했다.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때 사치품으로 분류됐던 에어컨의 구입비용을 생활필수품으로 인정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 세대에 최대 5만엔(한화 약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냉방복지 제도를 시행했다.

안소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국내에서도 한시적인 요금 완화 정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일본의 냉방복지 정책같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우체국 체크카드 5만원 이상 결제면 5000원 캐시백

9월 한달간 최고 2만원 돌려줘

토의·텔스 응시료도 1만원 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추석맞이 9월 3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우체국 체크카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국 전통시장과 중소슈퍼에서 우체국 체크카드 5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건당 5000원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다만 최고 2만원 한도이며 전통시장과 중소슈퍼별 각각 1만원 한도다.

캐시백 서비스는 전국의 BC카드 가맹점인 전통시장과 중소슈퍼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해당 가맹점은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과 중소슈퍼 캐시

백 혜택이 있는 '스타트', '영리한(YOUNG 리 한)', '어디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카드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중복으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윤리 우정사업본부장은 취업준비생 기(氣) 살리기의 일환으로 외국어시험 캐시백 서비스와 청년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도 지원한다.

취업준비생들의 외국어 시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벤트 기간 동안 TOEIC, TEFS 응시료를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 시 1인 1회에 한해 1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특히 '영리한(YOUNG 리 한) 체크카드'를 신규 발급받은 청년 고객에게는 청년들에게 특화된 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 상품은 이벤트 기간에 상관없이 20세부터 34세까지 미취업자에 한해

1만 6000명까지 선착순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재해수술, 교통재해응급실 통원, 시중독, 결핵 등 1년 간 보험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전액 부담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한가위를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슈퍼를 통한 골목상권 확대에 기여하고 취업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우체국은 늘 국민경제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차한금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석맞이 우체국 체크카드의 혜택과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의 우체국 금융창구나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눔 Lotto 제 822회차 당첨결과 (2018년 9월 1일 추첨)

9 18 20 24 27 36 + 12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3	6,930,898,625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79	37,537,334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 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153	1,377,357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08,789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735,565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준 : 지급계시일로부터 1년 휴일인 경우 익일입금)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